



보도일	제한없음		
배포일	홍보담당	홍보팀(02-880-5054, 9072)	
담당부서	연구처/창업지원단	문의	연구정책과/창업기획부(880-2044)

서울대, 글로벌 창업 지원을 위해 중국에 창업인프라 구축

- 급변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시장 참여를 위해 중국 거점 확보
- ‘KIC 중국’ 과 양해각서 체결 및 중국 스타트업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

□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(단장 김성철 연구처장)은 학내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중국 스타트업 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였다.

- 서울대학교는 12월 11일(화) 글로벌 스타트업 시장을 주도하는 중국의 대표적 창업 클러스트인 베이징 중관촌의 국가주도 창업지원 시설 INNOWAY 센터와 동북아 창업대학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칭화대 X-LAP을 방문하고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네트워킹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 특히 12월 12일(수)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 ‘KIC(한국혁신센터) 중국’ 과 창업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서울대학교 창업기업의 중국 진출과 현지 창업을 위한 상호지원을 약속했다.
- 또한 다음날인 12월 13일(목)에는 베이징과 함께 중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대표하는 심천의 메이커스 센터인 대공방을 방문하여 창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고, 현재 서울대학교가 자체 운영중인 메이커스 센터의 확대와 시설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.

□ 서울대학교는 창업문화 확산과 국가 미래성장 동력이 될 챔피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 9월 창업지원 전담조직인 창업지원단을 설립하였고, 상반기 미국 실리콘밸리와 하반기 중국 시장 거점 확보를 통해 글로벌 창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다.

별첨 : 사진(서울대와 KIC 중국 협약 체결 2018.12.12.)